

종합·해설

삼성 특검법 국회 소위 통과... 향후 전망은?

대선전 수사 어려울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회 통과엔 12월 말에나 수사 착수

국회 법사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기면서 삼성에 대한 특검 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일단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과정과 수사 준비기간이 필요해 대선 전 수사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또 청와대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법안의 명칭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범위는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등이 다.

구체적 수사대상은 우선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할값발행, 삼성에 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고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여기에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공무원·언론계·학계 등 사회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로비지침·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중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란 부분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3당 법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초 타협안에서 빠진 '97년'은 소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97년 비자금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대선자금', '당선축하금'이라는 용어를 법안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당선축하금'이란 말만 법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사용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특별검사 추천주체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 대한변호사협회로 정했다.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대한변협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23일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10일께는 본격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 서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昌 '대선자금 횡령' 공방

"의혹 다 공개하면 昌 파멸" vs "음모적 책동" YS "먼저 인간이 돼야" 이회창 후보에 독설

최근 'BBK 정국'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진영 간 날 선 공방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 범여권 후보들의 부진속에 나란히 여론 지지를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본선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선대위 총괄기획팀장인 정두언 의원은 22일 "이회창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건 있으나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의 화신"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이회창 후보가 끝까지 갈 것인지 중도에 내릴 것인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비전과 출마 명분의 부재속에 오로지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러서서 그런 기회주의적 처신이 불가

피할 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한 특강에서 이회창 후보를 겨냥,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측 이혜연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다급한 마음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판단을 한 듯 하다"면서 "조급함을 접고 부디 자중자약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BBK 사건에서 이 후보가 결백을 밝히기 위해 서라도 '친필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다.

/연합뉴스

"대선자금 수사중단 YS 지시 사실무근"

DJ 측 YS 발언 반박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22일 김영삼 <사진> 전 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 비자금에 대한 수사중단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계좌들은 지금도 있다.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문제는 신한국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고, 당시 검찰은 근거가 없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선거 이후 검찰이 수사했으나 사실무근이고, 계좌들은 광릉계좌함이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수뇌부 인사 곧 단행

정상명 검찰총장이 23일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급 보직에 대한 검찰 수뇌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사법시험 20회(연수원 10기) 간부가, 서울고검장에는 사시 19회(연수원 9

기) 간부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차장에는 박영수(55) 대검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권재진(53) 대구고검장이 유력하다.

박상길(54) 부산고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안영욱(52)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인사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해의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최종 검토작업을 할 방침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

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과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BBK 의혹 및 각종 대선후보 고소·고발 사건 수사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수사를 관할하는 검사장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무리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특검 법사소위 격론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삼성 특검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野 단일화? 與 연정?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선거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대선 구도는 여전히 흥미를 거듭하고 있다.

보수 세력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에 맞서는 범여권 대선 후보도 다자 구도로 형성돼 있다.

여기에 BBK 추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간 결과가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이라는 점에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즉,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실한 대선 구도는 이르면 대선 보름 전이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보다는 각종 대형 변수에 근거한 다양한 대선 시나리오만이 유행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 보수 진영 최초의 후보 단일화인 데다 양 후보의 지지를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의 최대 관심사다.

대선 후보 등록 이전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범여권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정책노선 공유를 통한 연합정부 구성 방식을 근간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 반(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지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막판까지 변수가 많고 복잡하게 진행돼 매우 흥미롭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에게는 한국의 대선 구도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난감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요모조모 따져 '최선'을 찾기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변수와 상호 비방전 틈에서 '차선(次善)'과 '차차선(次次善)'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 언론사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 응답률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검증할 수 없는 대선 정국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도 순탄하게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온갖 변수 속에서 국민은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 왔다. 이제 국민 스스로 안갯속 대선 정국의 불을 밝혀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tuim@kwangju.co.kr

민주당 장흥군수 후보 백도선씨 출정식

민주당 장흥군수 공천을 받은 백도선(62) 후보가 22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백 후보는 "공천의 고마움을 필승으

로 갚겠다"며 "지방자치 12년동안 달라진 게 없다. 행정 경험을 살려 장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창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당 관계자와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푸른 열정으로 세계를 지휘하라!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 C&G그룹에서 전문 뉴 리더를 모십니다.

구분	직책	요건
1.인사	인사팀장	인사관리 10년 이상 경력, 인사관리 1급 자격증 보유
	인사팀원	인사관리 5년 이상 경력, 인사관리 1급 자격증 보유
2.영업	영업팀장	영업관리 10년 이상 경력, 영업관리 1급 자격증 보유
	영업팀원	영업관리 5년 이상 경력, 영업관리 1급 자격증 보유
3.재무	재무팀장	재무관리 10년 이상 경력, 재무관리 1급 자격증 보유
	재무팀원	재무관리 5년 이상 경력, 재무관리 1급 자격증 보유
4.법무	법무팀장	법무관리 10년 이상 경력, 법무관리 1급 자격증 보유
	법무팀원	법무관리 5년 이상 경력, 법무관리 1급 자격증 보유

문의: 02-2600-1111

www.candg.com